

S-Oil, 울산 대기질 개선 “앞장”

축열식 소각로 RTO 정상가동 ... VOCs · 악취 저감효율 우수

S-Oil 울산공장이 악취저감 방지시설인 축열식 소각로(RTO: Regenerative Thermal Oxidizer)를 설치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S-Oil 울산공장은 악취저감 방지시설인 축열식 소각로를 2009년 9월 설치해 현재 정상 가동하고 있다고 11월4일 발표했다.

총 52억원이 투자된 축열식 소각로는 각종 악취물질을 시간당 5만여m³를 처리할 수 있다.

S-Oil은 앞으로 울산 1, 2공장의 폐수처리장의 악취저감에 기여하고 울산의 대기질 개선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축열식 소각로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VOCs(휘발성 유기화합물)이나 악취물질을 완전히 소각해 무취, 무해한 상태로 처리하는 설비이다.

축열제를 이용해 연료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기존 소각시설보다 에너지나 이산화탄소(CO₂)를 줄이는 방지시설로 악취 및 VOCs 저감효율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S-Oil 관계자는 “지속발전 가능한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SCR) 및 공정 내 시설의 누출관리시스템(LDAR) 등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장기적인 환경투자계획에 따라 활발한 투자를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0/11/04>